

『樸素村話』에 기록된 호서지역 여성의 모습

이 재 숙*

<目次>

- | | |
|------------------------|-----------------------|
| I. 서론 | 2. 善行을 실천한 여성의 기록 |
| II. 『박소촌화』 속 여성의 삶과 기록 | 3.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여성의 면모 |
| 1. 被禍의 체험과 사대부 여성의 역할 | III. 결론 |

<국문 초록>

『박소촌화』는 이동윤이 충청도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저작이다. 본고는 『박소촌화』가 호서 지역의 당대 문화사 및 인물 행적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지역 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신임사화를 배경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을 수습하고 극복한 여성들의 일화를 살펴보았다.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을 당시, 가문의 명맥을 위해 집안을 다스리고 의연합을 잃지 않으며 대처한 사대부 여성들의 모습과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둘째, 『박소촌화』에는 효행과 정절을 실천한 향인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동윤은 지역 마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이거나 자신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 중에 절의와 충성, 효행을 강조하는 여성상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선행의 일화를 기록하여 후세에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 세상의 감계(鑑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원 조임연구원 / jaisugi@hanmail.net

戒)로 삼으려 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동윤은 호서지역의 지혜로운 첩이나 학문적 역량과 문장이 뛰어난 여성에 대한 일화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명문가 집안의 여성과 향인의 알려지지 않은 여성에 대한 문학적 재능과 소양, 文識과 雅趣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동윤은 여성이 지닌 독자적 재능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소촌화』는 호서 지역 여성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풍부한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에 지역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박소촌화(樸素村話)』, 이동윤, 호서지역, 신임사화, 노론 사대신

I. 서론

敏齋 李東允(1727-1809)의 저작인 『박소촌화』는 그가 홍성과 덕산의 嘉谷에 거주하면서 기록한 야담집이다.¹⁾ 『박소촌화』는 저작자와 저작연대가 학계에 보고된 이후²⁾ 야담연구 자료로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주로 서사방식을 중심으로 『박소촌화』에 나타난 사상과 저작동인 등이 밝혀졌다.³⁾

-
- 1) 이동윤은 자가 君執이고 호는 敏齋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중종의 5남인 덕양군 岐의 9세손이고 良靖公 李箕翊의 증손이다.
 - 2) 정준식, 「『박소촌화』의 著作者와 著作年代」, 『어문연구』39, 어문연구학회, 2002. 필자는 이동윤이 저작자임을 밝히고, 대략 1789년에서 1795년에 이동윤이 덕산현 박소촌에 거주하면서 저술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3) 이병직, 「이동윤의 사상과 『박소촌화』의 저작동인」, 『문창어문논집』39, 문창어문학회, 2002.
이병직, 「박소촌화의 텍스트 구성방식과 의미」, 『한국민족문화』2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정준식, 「박소촌화 소재 노비담 연구」, 『어문연구』42, 어문연구학회, 2003.
하미경, 「박소촌화에 나타난 이동윤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학학회, 2003.
송철호, 「박소촌화를 통해 본 18세기 보수적 지식인의 모습」, 『한국민족문화』21, 한

이후 박사논문이 제출되면서 『박소촌화』 소재 야담의 유형과 개별 작품론 약간이 소개되었을 뿐⁴⁾ 아직까지 학계에 다양하게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동안 『박소촌화』에 대한 연구는 야담으로서의 이야기 구조와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인물 및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동윤은 南堂 韓元震·屏溪 尹鳳久 등 주로 노론학자에게서 수학하였고 누이인 鄭婦人 이씨⁵⁾의 권유로 惟勤堂 金教行에게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동윤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젊은 시절 누이의 집에서 9년 동안 의탁하며 지냈고, 1762년 덕산현 嘉谷으로 옮겨와 거주하면서 이 지역의 여러 일화 및 인물과 사건 등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충청도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바로 『박소촌화』이다.

본고는 이처럼 이동윤의 『박소촌화』가 호서 지역의 당대 문화사 및 인물 행적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동윤이 남긴 기록에는 저자 자신의 문견에 바탕한 독창적인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정치·역사 사건에 대한 정보, 학계·문단 동향, 사대부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일화 등 호서지역과 관련하여 매우 자세하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⁶⁾

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 4) 조선옥, 『박소촌화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병직,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64, 한국문학회, 2013.
- 5) 이동윤의 부친 李厚濟는 김상용의 후손 김시발의 딸 안동 김씨와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곧 누이 정부인 이씨이다. 안동 김씨가 죽고 다시 박수익의 딸과 결혼하여 3남 1녀를 낳았는데 이동윤이 둘째이다. 이동윤은 이 누이와 매우 각별하였고 자형인 정운환과 함께 남당문하에서 수학하고, 20대 누이의 집에 9년간 기거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서경희, 「이동윤이 기록한 누나 전주 이씨의 삶과 의미」, 『국어국문학』156, 국어국문학회, 2010 참조.
- 6) 김영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해외한국학자료 「『樸素村話』 해제」 참조.
김영진,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集部 1』, 서울대 규장각, 2002.
김영진, 「『樸素村話』 해제」,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9』, 연세대 국학연

『박소촌화』는 저자의 의식경향이 노론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당파적 특성이 강한 저술이다. 이런 편향된 시각은 다소 반대 당파에 대한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당대 시사와 문화를 평가하기에 객관적이지 못한 기록이라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박소촌화』는 노론계 내부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매우 자세하고 미묘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 호서지역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문건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호서지역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야기와 사건의 전말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 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객관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호서지역 여성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에 첫째, 신임사회를 배경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을 수습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던 여성들의 일화, 둘째 『박소촌화』에 기록된 호서지역 여성의 선행과 악행에 관련된 이야기, 셋째, 문학적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호서지역 여성들의 면모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호서 지역 여성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풍부한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박소촌화』의 지역문화적인 가치를 제고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박소촌화』 속 여성의 삶과 기록

1. 被禍의 체험과 사대부 여성의 역할

구원, 2008. 참조 『박소촌화』는 버클리대본·연세대본·규장각본·임형택본 총 4종의 이본이 있다. 이 중에 규장각 소장 3책본이 총 612화(제1권 181화, 제2권 216화, 제3권 215화)이고, 버클리대본은 그를 절반가량 抄하였다. 규장각본이 가장 최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텍스트는 규장각본임을 밝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박소촌화』는 지극히 노론의 입장을 견지한 저작으로서, 노론 중에서 호론계의 대표인물, 노론과 소론, 남인 간의 대립구도와 첨예한 당론들에 대해 매우 상세히 엿볼 수 있다. 이에 당대 피화에 대한 뒷이야기와 避亂,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문을 보존하려 했던 여성들의 일화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노론 사대신 가문의 피화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⁷⁾ 1721년 경종연간 睦虎龍의 고변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는데, 이 당시 被禍의 상세한 이야기들이 『박소촌화』에 실려 있다.

다음 기사는 1721년(경종 1) 세제의 대리청정이 실패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중 목호룡의 고변으로 이듬해 4월 서울로 압송, 賜死되었던 李頤命 가문의 이야기이다. 이때 이이명의 아들 李器之 역시 함께 연루되어 남원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 의금부에 투옥되어 고문 끝에 죽었다. 다음은 이이명의 손자인 雪川公 李鳳祥이 被禍 당시 避亂한 과정과 살아남게 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설천공⁸⁾이 무주에 있을 때에 장모인 죽취공⁹⁾ 부인이 금산에 유배가 있어서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 그러나 그 사위가 진짜 돌을 품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여겼고, 설천공 또한 장모가 이곳에 귀양 온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당시 사람이 일을 도모하는

7) 사화를 극복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황수연, 「사화의 극복, 여성의 숨은 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참조.

8) 李鳳祥 : 본관은 전주(全州), 본관 全州, 자는 儀韶, 호는 雪川. 조부 이이명이 목호룡의 고변으로 사사되자, 부친 역시 유배되어 죽었고 이봉상은 16세의 나이에 역시 연좌되었다.

9) 죽취공 : 金濟謙(1680~1722)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必亨, 호는 竹醉이다. 동지중추부사 光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壽桓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昌集이며, 어머니는 朴世楠의 딸이다. 1722년 아버지가 노론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소론의 金一鏡·睦虎龍 등에 의해 사사되자 울산에 유배, 뒤에 富寧으로 이배되었다가 사형 당하였다.

것이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웠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수현은 곧 설천공의 외가에서 온 노비이다. 정씨가 화를 두려워하여 잡으려 했으나, 노비는 설천공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보존케 했으니, 그 역시 기이한 일이다.

충문공 부인(10) 수현에게 좋은 전토를 후하게 상으로 주어 자신의 손자를 위해 애쓴 노고에 보답했다고 한다. 당시에 김용택(11) 역시 참담한 화를 당했는데, 그의 아들 김대재는 이천의 산 속으로 달아나 숨었다. 그의 가까운 친척이 화를 두려워하여 그를 잡아 바쳤기 때문에 마침내 참형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아, 참담할 따름이다.(12)

윗글은 신임사화 당시 화를 입은 이이명의 집안에 대한 사건을 서술한 것이다. 설천공 이봉상과 금산에 유배와 있던 장모 죽취공 부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임인옥사 당시 서로 지척의 거리에 있음에도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죽취공 부인은 사위인 이봉상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죽음을 가장하고 집안 노비의 충성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봉상 피화담은 여러 아사에도 전해지거니와, 『박소촌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역 인물과 관련되어 있어 더욱 상세한 편이다.(13) 이동윤은 설천공 이봉상이 누이인 정부인에게 외조모의 조카가 되는 까닭에 자세한 전말을 누이에게 직접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였다.(14) 이에 설천공이 도망 다니고 유배되었던 일들의 전말을 누이에게 자세히 들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이명 집안

10) 충문공부인은 소개 이이명의 부인으로 광산김씨로 김만중의 딸이다.

11) 金龍澤(?~1722) : 본관은 光州, 자는 德雨, 호는 高松軒이다. 陸虎龍의 고변으로 발생한 壬寅獄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

12) 『박소촌화』 1권 136화, “雪川公在茂朱時, 其妻母竹醉公夫人, 謫錦山, 相距密邇, 而謂其壻眞箇懷石, 雪川公亦莫知其妻母之謫在於是, 當時人謀之愼密, 亦可知矣. 守賢卽雪川公外家所來之奴也. 鄭氏方畏禍欲捕, 而奴能竭忠存孤, 其亦異哉. 忠文公夫人, 厚賞守賢以好田土, 以酬其功勞云. 當時, 金龍澤亦被酷禍, 其孤大材遭竄于伊川峽中, 爲其至親怖禍, 而捕納, 竟不免慘刑, 吁, 可慘也已.”

13) 이봉상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연구가 있으므로 더 후술하지 않았다. 서경희, 「이봉상 사건의 전승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선옥, 「이봉상 피화담의 문학적성」,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14) 『박소촌화』 1권 135화, “雪川公於我姊鄭氏婦爲外祖母之從子也. 嘗語其遺竄顛末于姊, 余今記其旁聽如此.”

의 사화와 피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부분 서술되어 있다. 위의 일화로 보면, 이이명이 임인년 화로 죽고 그의 아들 이기지 역시 죽었는데 난을 피하려고 설천공 이봉상은 돌을 품고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장모인 죽취공 김제겸의 부인도 금산에 유배가 있으면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이명의 부인 김씨가 손자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애쓴 노비 수현에게 보답했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뒷글에 언급된 죽취공 부인이나 충문공 부인¹⁵⁾ 역시 피화로 인해 유배 중이었다.

다음 역시 노론 사대신 중 한명인 이견명 집안에 대한 일화이다. 이이명과 김창집 집안의 두 여성이 피화 중에서도 가문의 명맥을 위해 집안을 다스리고 의연함을 잃지 않으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李健命**이 피화 될 때의 기사이다.

한포재 이충민공은¹⁶⁾ 흥양의 나로도로 유배를 갔는데, 스스로 세 충신과 똑같이 사형의 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흉당이 공에게 참형을 가하리겠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분하여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자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중략)… 덕산의 나연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큰아들 면지와 술지 또한 현문 밖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다. 친척들이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하려했으나, 술지가 유독 마시지 않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참형을 받으시라고 간언했으니, 나 또한 죽어서 그 고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충민공의 둘째아들은 종부인 宗輔令 李晉命에게 출계하였으나 이미 일찍 죽었다. 충민공의 집안 재산을 관청에서 모두 몰수해버리니, 그 신주를 모실 곳이 없었다.

성지의 아내인 상산 김씨가 임시로 목주를 받들어 모시고 경기도 서하로 돌아와 수십 간의 집을 짓고 포치가 이미 끝나자 예를 다하여 제사를 지냈다. 김씨는 일찍

-
- 15) 이이명의 아내 김씨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상언을 올려 자신이 이봉상을 도주시켰음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임형택, 「김씨 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화사연구』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16) 한포재 이충민공 : 이견명(1663~1722),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仲剛, 호는 寒圃齋, 시호는 忠愍이다.

고아가 되어 어려서 숙부의 집에서 자랐다. 신임의 변 때에 그 숙부가 충민공에게 죄를 청한 일이 있자 김씨는 숙부에 대한 은혜와 정을 끊고 절대로 연락하지 않았다. 일찍이 숙부가 백리에 사람을 보내어 사과하는 뜻의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이에 심부름 간 사람을 손으로 내저으며 대문 밖으로 내쫓아 끝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김씨는 참으로 세속의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그 전후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쓸 만한 내용이 많으나 검산 유숙기가 김씨에 대해 전을 지었다. 영조 을사년에 네 공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 신원하여 충민공의 두 아들은 지평으로 추증하였다. 김씨는 勉之의 막내아들 衍祥으로 후사를 삼았는데, 벼슬이 대총재에 이르렀다.¹⁷⁾

이건명(1663~1722)은 홍양의 나로도에 유배되었다가 참형을 당하였고 두 아들 면지와 술지도 장살되었다. 이성지는 당시 양자로 갔기 때문에 이때 이성지 부인인 상산 김씨만이 사건에 연류되지 않고 무사하였다. 그러나 남편인 이성지는 일찍 죽었고 피화를 입은 뒤 가문의 모든 남자는 죽고 신주를 모시거나 화를 입은 이들의 상례를 모실만 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집안의 상례를 모두 김씨가 주관하였다고 한다. 김씨에 대해서는 검산 유숙기가 따로 「金孺人傳」을 입전하기도 하였다.¹⁸⁾ 위의 일화를 통해서 김씨가 상례를 도맡아 주관하고 살림을 맡아 꾸린 것, 그리고 당파적 입장이 달랐던 친정식구를 끝내 거부한 일을 특징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동윤은 상산 김씨를 “세속의 부녀자가 아니다.(固非世俗婦女)”라고 표현하였다. 피화를 입으면서 가문의 존속을 위해 상례를 주관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유지하며 명맥을 유지하는

17) 『박소촌화』 1권 136화, “寒圃齋李忠愍公, 謫興陽羅老島, 自分與三忠同受後命. 及聞凶黨獨加慘刑於公, 乃奮然曰, 吾寧自盡也. … 藁葬于德山之蘿淵. 長子勉之與述之, 亦竝命於縣門外. 親戚勸酒, 欲使迷醉, 述之獨不飲曰, 吾諫吾父以受慘刑, 吾亦臨死而當知其痛也. 忠愍仲子性之, 出後於其從父宗廟令晉命, 已知折. 及忠愍家藏獲盡沒于官, 其筵几, 無可往矣. 性之妻商山金氏, 權奉木主, 歸于圻輔之西河, 營屋數十間, 鋪置已訖, 喪祭盡禮. 金氏早孤, 幼養於其叔父, 辛壬之變, 其叔父有請罪忠愍之事. 金氏割其恩愛, 絕不通信. 其叔父, 嘗百里專人, 有摧謝之書. 乃標使者, 出之大門之外, 終拒不受. 金氏固非世俗婦女. 其前後處變, 可書者多, 兪兼山肅基爲之立傳. 英廟乙巳昭雪四公冤, 贈忠愍兩子持平. 金氏以勉之季子衍祥爲後, 官至大家宰.”

18) 상산 김씨에 대한 전을 말한다. 兪肅基, 「金孺人傳」, 『兼山集』 권8, 한국문집총간 74권, 330a면.

일 역시 보통 세속의 아녀자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동운 역시 이견명 집안의 피화와 부인들의 행적을 자세 히 기록하였다.

노론 사대신 집안의 피화와 여성들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 金信謙의 「百六哀吟」을 참고할 수 있다. 老稼齋 金昌業의 셋째아들이자 이이 명의 사위였던 김신겸은 신임사화 때 유배생활을 하며 자신의 친척과 사우들을 그리워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¹⁹⁾ 자신의 집안을 위해 평생 정성을 다한 유모와 여노비 뿐만 아니라, 장모 및 이봉상에게 시집간 죽취공의 장녀, 자신의 아내 등 피화와 관련한 여성들의 모습과 슬픔을 담아내었다. 김신겸의 장모 충민공 부인은 화를 당할 당시 자진하려고 했으며, 손자인 이봉상의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에 부안으로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를 따라 유배 갔다.²⁰⁾ 죽취공 김제겸의 장녀로서 이봉상에게 시집간 김신겸의 조카도 이때 함께 간 것인데, 열다섯에 시집간 지 1년 만에 화를 입게 된 처지를 슬퍼하고 시를 지어 통탄해 하였다.²¹⁾

『박소촌화』의 일화에 소개된 것처럼 신임사화의 화를 입은 노론 사대신 집안의 여성들은 멸문의 화가 닥치는 처참한 지경에도 가문의 보존과 훗날의 명맥을 도모하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동운은 누이를 통해 전해들은 노론 사대부 여성의 이야기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19) 김남기, 「金信謙의 「百六哀吟」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22, 한국한문학회, 1998, pp.360-362.

20) 김신겸, 「百六哀吟」, 『櫓集集』 권2, 한국문집총간 b72권, 150d면, “夫人常痛大人西浦公卒于南海柵棘中, 又見壬寅之禍, 禍初欲自盡, 余無以爲解, 乃泣曰夫人死則, 鳳祥亦不可保. 今日此亦不可以爲解矣. 力隨子婦孫婦流扶安. 每得手書, 不忍再讀, 肅廟賓天日, 夫人謂余曰我窈窕嗣王明聖, 高出百王, 否則領相有周召之賢, 斯言仁厚惻怛, 亦宜蒙上天之佑, 而至此極者何哉. 三從奇禍古無聞, 天道茫茫可復論, 哭似嬰兒餘縷息, 楚江烟雨暗孤村.”

21) 앞의 책, 151a면, “竹醉公長女, 十五嫁, 嫁一年遭壬寅之難, 本家舅家三世及禍, 其情境古今一人, 與其姑鄭屬扶安郡. 余被竄前一月, 陪外姑往其寓, 歸時哭如失怙不忍見. 羸形短髮且須臾, 萬古哀應似汝無, 遙知海曲魚蝦市, 密遣兒鬻又賣珠.”

데, 이에 대해서는 원고를 달리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善行을 실천한 여성의 기록

『박소촌화』는 호서지역의 효행과 절의를 지킨 여성들의 이야기와 지역의 일화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일화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담보하고 있다. 선행과 효행, 절의를 실천한 여성 중에는 부인과 노비 등 계층도 다양하다.

다음은 김우항 집안 유모에 대한 기록이다.

충정공 김우항은 세칭 흥동의 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의 숙부이다. 영조 을사년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다시 등용되어 벼슬하시는데, 충정공의 아들인 황주공 김언희씨의 집에 세를 얻어 살았다. 당시 황주공은 독자인 김기조씨를 위해 부인감을 골랐는데, 곧 참판 박사정의 딸이었다. 시집을 오니, 남편 집의 두 유모가 한명은 가난하고 한명은 부자였다. 부자인 유모는 유기 등 혼수를 성대히 갖추어 신부에게 주려하였다. 어머니께서 가난한 유모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난하여 예를 갖추어 줄 수 없으니 안됐다.”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소인은 재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대감 내외분이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무심히 그 말을 들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부자 유모는 충정공의 서자의 부인 중 과부가 된 이와 함께 흥한 것을 묻고 독을 타서 마침내 작은 대감을 해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자 죽임을 당하였다. 가난한 유모는 이름이 월선인데 그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었다.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의 말이 아마도 일어날 정황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여겼다. 한 여종은 형장아래에서 자복하면서 말하기를 “작은 대감께서 병으로 위독하였다. 뿔가루를 죽에 섞어 입에 넣어드렸는데 곧바로 운명하셨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²²⁾

22) 『박소촌화』1권 172화, “金忠靖公字杭, 世稱興洞相, 我祖妣之叔父也. 英廟乙巳, 我祖考方甄復而從仕, 僦居于忠靖之子黃州公彥熙氏所. 時, 黃州公爲其獨子基祚氏, 媿婦, 卽朴參判師正之女. 方其于歸, 壻氏家兩乳母, 一貧一富, 富者, 盛備鑪器資裝, 將與新婦. 先妣謂其貧者曰, 爾則貧, 無以爲禮, 可憐也. 對曰, 小人, 竊以爲不當以貨財, 而爲禮, 只祝少主內外遐壽享福, 可也. 先妣泛聽之. 不數年, 其乳母之富者, 與忠靖公庶子

위 글은 부자 유모와 가난한 유모의 善惡을 대비적인 행적과 결말로 구성한 일화이다. 전체적으로 이동윤이 어머니께 직접 전해들은 옛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김우항의 家奴가 주인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일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매우 자세히 밝히고 있다.²³⁾ 가난하지만 진정으로 주인 부부의 행복을 기원했던 유모는 끝내 주인을 배반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부자였던 유모는 주인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여 결국 주인을 죽이고 자신도 벌을 받아 처형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좀 더 고증을 통해야 하겠지만, 이동윤은 이 글을 통해 재물로 섬기는 것은 예의가 아님을 말하며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던 유모의 절의를 강조하고 있다. 善惡으로 대비되는 인물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다는 정황을 기록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동윤은 악행을 일삼은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善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화로 악녀 家婢에 대한 일화를 들어 본다.

나의 증조부 良靖公의 부인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부인 민씨께서는 현명하고 덕이 있어 嫡室의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 성취시키셨다. 노비를 부릴 때에도 은혜롭게 대하셨다. 집안의 노비 命玉은 본디 梟獍의 성품을 지녀 몰래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의 딸 占德과 함께 흥측한 물건을 땅에 묻었다. 민씨는 이 때문에 병에 걸렸다. 돌아가실 때에 일이 발각되어 명옥과 점덕을 묶고 그들의 집에서 흥측한 도구를 찾아내었다. 아울러 형벌로 신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는 명옥을 죽였고, 점덕을 바깥 행랑에 가두고는 노비 成發등에게 지키게 하였다. 다시 형벌을 가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점덕은 이미 모진 고문을 받았고 또 묶어놓아 목을 베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앞에 문 하나가 있는데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 놓았고, 뒤에는 작은 창이

婦寡居者，埋凶置毒，竟害其少主，事覺被戮。貧者，名月仙，以不與其謀，放逐。先妣以爲當日之言，似知情而然矣。一婢，自服於桁楊下曰，少主，疾篤也。和骨末于粥飲，入口而卽殞命也。卽其地撲殺。”

23) 『영조실록』권38, 영조 10년 7월 26일조 참조.

있는데 매우 높았다. 창밖의 높이가 한丈 남짓 되는데 큰길로 이어져 있었다. 점덕은 밤을 틈타 탈출하여 창을 뛰어넘어 도망갔다.

동이 뜬 뒤에 도망간 것을 알고 지키던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며 마땅히 대신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밖은 스스로 잡아다가 바치겠다고 청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드디어 좌우 포도청의 군졸들을 풀어 감시하게 하였는데 끝내 찾지 못했다. 선친께서 포도대장 申光夏를 찾아가 멀리 경기도 안을 수색해 달라고 요청하니 신공이 난처해했다. 선친이 말하기를 “윗사람을 죽이려고 피하였으니 사노비라도 나라의 역적과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꼭 잡으려고 힘쓰지 않고 멀리까지 수색하는데에 난처해하니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하고는 힘써 간쟁하여 마지않았다. 신공이 마침내 허락하여 군졸을 풀어 사망으로 수색하였으나 또한 잡지 못했다..(중략)..점덕은 완력이 있어 잘 훔쳤고 시장 사람들과 크게 다투었다. 냇가의 버드나무를 뽑아 한 번에 십여 명을 때렸으니 능히 당해낼 자가 드물었다. 일찍이 긴 치마를 끌면서 시장을 지나갔는데, 사람이 도박하는 곳에서 돈케미를 엄지에 끼우고 가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母子는 흉악한 반역의 무리로서 재앙을 일으킬 마음을 품은 지 또한 오래되었고 끝내 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후략)...24)

위에 언급된 양정공은 이동윤의 증조부인 李箕翊을 말한다. 이 일화 역시 이동윤의 집안에 전해온 이야기로 아마 누이 정부인 이씨에게 전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집안에 일어났던 직접적인 일화는 사실감을 더 증폭시켜 준다. 명옥과 점덕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모녀 家婢에 대한 일화를 매우 상세히 또 서사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물론 이 일화의 전체적인 주제는 충성스러운

24) 『박소촌화』1권 153화, “我曾王考良靖公夫人早沒, 副室閔氏賢而有德, 愛育嫡子女而成就之. 御婢僕亦有恩, 家婢命玉, 本以梟獍之性, 陰畜謀害之心, 與其女占德埋凶, 閔氏疾崇于此. 及卒事覺, 縛命玉與占德, 索得凶穢之具於其家. 并刑訊得情戮命玉, 已囚占德于外廡, 使奴成發等守之. 將更加刑訊而戮之, 占德既多被刑, 又加拘擣, 殊死而不敢動. 前有一戶而堅鎖, 後有小窓而甚高, 窓外之高可丈餘而臨大道, 占德乘夜脫身, 踰外窓而走. 平明乃覺, 刑其守者, 謂當代殺. 成發自請捕納而出去, 遂發左右捕廳卒窺伺而終不得. 先人往見申大將光夏, 請遠索于畿內, 申公難之. 先人曰, 謀弑其上, 則私奴與國賊罪無異同, 而執法者不務必捉, 而難於遠索, 是亦可乎. 力爭不已, 申公竟許之, 發卒四索而亦不能得. … 占德有膂力, 善偷竊與市人大戰, 拔川邊柳木, 一打十餘人, 則鮮能當者. 嘗曳長裙過市, 人爭賭處, 挾一緡錢于搨而去, 人莫能知. 蓋其母子以凶逆逆腸, 包藏禍心, 亦已久矣, 卒乃至此. …”

노비 成發에게 귀결된다. 그렇지만, 충노인 성발보다는 주인을 모해한 명옥과 점덕이 저지른 악행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악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²⁵⁾ 일화의 후반부에 서술하고 이어 점덕의 평소 인물됨을 소개하여 악행을 저지를 만한 성품을 지녔음을 강조하였다. 이 또한 주인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를 노비와, 충성을 다한 성발이라는 노비가 대비적으로 부각되고, 결국 권선징악의 감계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모녀간 저지른 여노비의 악행을 어느 일화보다 극적이고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원인 등을 후반부에 배치하여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이밖에도 『박소촌화』에는 효행과 정절을 실천한 鄉人의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많다. 몇몇은 다른 여타의 야담에 비슷한 이야기 요소가 있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향인과 호서지역 여성에 대한 효행과 정절의 일화인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덕산 李益模의 처 俞氏에 대한 효행기록이다.

덕산 이익모의 처 유씨는 시남 유계 선생의 10여 세 후손이다. 어머니가 번갈병이 심하였는데, 갑자기 앵도가 먹고 싶다고 하였다. 때는 8월 하순이었는데, 유씨가 숲에서 앵두를 구하였으나 다만 땅에 쌓인 낙엽과 듚성한 가지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씨는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와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 다시 가서 가지를 잡고 눈물을 흘리니 갑자기 가지 위에 다섯 개의 붉은 알이 보였다. 올망졸망한 것이 작은 대추 같았는데 크고 둥글어 서리를 맞았고 따서 닦으니 붉은 빛이 처음보다 더했다. 돌아와 어머니께 드리니 번갈증이 곧바로 그쳤고 병 또한 나아졌다. 외삼촌 운평 송공이 와서 보고 놀라 감탄하고 “옛날에 왕상이 빙어를 얻고 참새를 잡아서 봉양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집안 딸이 왕태보보다 어질구나.”라고 하였다.

시집을 간 후, 남편의 집이 수 십리나 떨어져 부모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방에 가까이 와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것을 살펴보니 친정집에서 기르던 개였다. 유씨는 개의 턱 아래에 편지를 매달아서 말하기를 “네가 온 것은 이유가

25) 악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명옥의 남편이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명옥이 이를 크게 원망하여 일어난 것이다.

있는 것 같으니 부모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였다. 개는 곧 알아듣고 떠났다. 다음날 다시 답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차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시부모를 섬기고 지아비를 받드는 일에 그 도를 다하였다. 나이 60세에 생을 마쳤고 아들 셋을 두었다. 여러 읍의 많은 선비들이 방백께 유씨의 행적을 기리자는 청을 올렸다.²⁶⁾

유씨는 市南 俞榮 선생의 후손이라고 밝혔다.²⁷⁾ 유씨가 어머니께 앵두를 구하여 봉양한 일과, 시집간 후 개의 목에 편지를 매달아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효행을 다한 일화를 서술하고 있다. 외삼촌 雲坪 宋能相이 진나라의 효자 왕상의 효행에 견주어 칭찬하였다. 이 일은 정조13년(1789)에 충청도 慰諭使 홍대협이 지역에서 효행을 실천한 이로 올려 보고가 되기도 하였다.²⁸⁾ 다음은 덕산의 鄉人 申光喆의 처 李氏의 효행에 대한 기록이다.

덕산의 향인 신광철의 처 이씨는 태어났을 때 좌우의 손바닥에 貞烈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였다.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을 마땅히 하였는데 광철이 일찍 죽었다. 손수 바느질하여 극진히 장례를 치렀다. 아침저녁 제전을 드릴 때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하고 날마다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하였다. 어느 날 큰 눈이 내려 길이 다니기 어려웠는데, 매일 새벽에 빗자루를 손수 들고 무덤에 가서 쓸어 한 점의 눈도 없게 하였다. 남편을 잃은 이후부터 빗질도 하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았으며, 긴 머리를 팔아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술과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드실 수 있게 힘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

26) 『박소촌화』3권 113화, “德山李益模妻俞氏, 市南先生曾孫十餘歲. 母夫人, 疾危煩渴, 忽思櫻桃, 時則八月下浣, 俞氏求之林下, 但見隕葉堆地, 疏枝婆婆而已. 掩抑而歸, 達宵不寐. 翌朝復往, 攀條流涕, 忽見枝上有五箇朱顆, 介介如小棗, 大滿帶霜華, 取而拭之, 紅潤反勝於初時. 時歸而進之, 煩渴即止, 病亦隨止. 其內舅雲坪宋公, 來見驚歎, 曰古有冰鯉幕雀, 此女賢於王太保. 及歸, 夫家距其家數舍地, 思親方切, 有物忽侵戶作聲, 視之, 乃在家時所畜狗也. 作書繫頤下, 曰爾來若有意, 能傳信父母否. 狗乃垂耳而去. 翌日, 復以答書來, 如是者屢, 人皆異之. 其事舅姑奉君子, 克盡其道. 年六十而終. 有子三人, 列邑多士, 呈于方伯以請施褒.”

27) 유씨의 인물정보는 자세하지 않다.

28) 『일성록』, 정조19년 을묘(1795, 건륭 60) 1월8일(신묘) 기사 참조.

략)… 어느 날 밧줄로 스스로 목을 매었는데 집안사람이 아는 이가 없었다. 의대 속에 편지 한통이 있었는데, 말하길 “지아버가 살아 있을 때엔 경으로써 섬기고, 지아버가 죽었을 때에는 죽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녀자의 도입니다.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이미 손자가 있으시니, 원컨대 위로하며 의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글을 올렸으나 정려로 기리지 못하였다. 대저 자식이 슬퍼한 나머지 부모의 상을 이기지 못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는 자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 부인의 훌륭한 점은 차마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혀내는 뜻이다.²⁹⁾

신광철은 申楫의 조카인데, 일찍 단명하였다. 신광철의 처는 원래 손바닥에 貞烈 두 글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신광철이 단명하자 장례지내고 매일 무덤에 가 통곡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으며 이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시부모를 봉양하고는 마침내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죽었다. 貞烈이 손바닥에 써 있었다는 기이한 일은 이씨의 행적을 대표적으로 짐작케하는 허구일 것이다. 위 글에서는 이씨가 “從夫死” 했던 것만을 기린 것이 아니라 孝行으로도 빛났음을 강조하여 이동윤이 그 뜻을 칭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근당 金教行 집안의 노비 예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성격이 운순하고 성실하며 활달하여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던 일을 기리고 있다.³⁰⁾ 노비뿐만 아니라 기생들의 節行을 기록한 것도 주목되는데, 이들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아버를 섬기듯 정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29) 『박소촌화』 3권 115화, “德山鄉人, 申光喆妻李氏, 生而左右掌文有貞烈二字, 人異之及其于歸, 能宜其室家, 光喆短折, 手自針線, 克慎送終, 祭于朝嘯, 事之如生, 日日上墓而號哭. 時當大雪, 道路難通, 而每晨自執箒, 往掃墳塋, 俾無一点雪. 自鑿麻後, 不櫛不襪, 賣其鬢養舅姑. 必有酒肉, 務適其口, 嘗語人曰, 吾所以姑. … 一日, 以一條繩自經, 家人莫之知也. 衣帶中有一書, 云夫生, 事之以敬, 夫死, 從之以死, 婦之道也. 吾今一死, 自不能已. 尊舅既有小子, 願寬譬而依倚也. 鄉人呈文, 而未克旌褒. 大抵子之不勝喪, 妻之從夫死者, 不必盡記, 而若此婦之卓絕, 不忍泯沒, 蓋亦微顯闡幽之意云爾.”

30) 『박소촌화』, “惟勤翁夫人閔氏, 老峰相公會孫也. 其竹兜後青衣, 名禮香, 性淳實通豁, 工於針線, 竭其忠誠以事其主, 未嘗有過. …”

31) 『박소촌화』 3권 117화.

이동윤은 지역 향인의 이야기나 자신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 중에 절의와 충성, 효행을 강조하는 여성상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곧 주인을 배반한 노비이거나 정절을 실천한 여인의 행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의 세상의 감계로 삼으려 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3.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여성의 면모

이동윤은 특히 호서지역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지역의 지혜로운 첩이나 학문적 역량과 문장이 뛰어난 여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첩의 신분으로 지혜롭고 겸손하여 자신의 집안의 가통을 지키려 했던 일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천 오수현은 결성의 송천에 살았는데, 이곳은 곧 그의 선조인 추탄 오윤겸 상공이 사신 옛 터이다. 땅이 산과 바다의 이로운 점을 겸하고 있어 기와집이 한 동네에 가득한데 하늘이 준 좋은 집터이다. 주인은 이미 여러 번 윤택한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문밖의 눈은 모두 극히 기름져 땅값이 높았다. 주인은 그 처를 소원히 하여 자식이 없었고 첩을 사랑하여 다섯 아들이 있었다. 마침내 후사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죽을 때에 서자로 적통을 이으라고 하자, 사람들 중에 혹 혈뎀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가뭇은 죽히 칭찬할 것이 있었다. 아내가 집안내의 권력을 잡고 있었고 첩은 다만 반찬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었다. 음식을 낼 적에 첩은 문 밖에 서서 다만 꾸짖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상을 거둘 때에 이에 물러나 혼자 밥을 먹었다. 주인이 일찍이 중문의 안으로 들어가 애첩을 보니 마당에 꿇어앉아 꾸지람을 받고 있었다. 이에 물러나 비갈방에 앉았다가 마음으로 애첩을 잊지 못하여 다시 중문으로 들어갔다. 첩은 여전히 꿇어앉아 엎드려있고 부인이 성내며 꾸짖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다시 물러나 중문에 들락날락 한 것이 서너 번인데도 끝내 그 첩을 편들어 줄 수 없었다.

일찍이 본처 부인 방의 반자를 꾸며 능화지를 바르고 방풍막을 더하였다. 첩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첩이 거하는 곳은 이것도 분에 넘칩니다. 거기다 아름답게 꾸미기 까지 한다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별방만 유독 반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인이 죽고 나서, 그 첩은 장자인 명목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나오리께서

비록 너로 하여금 적통을 잇게 하였으나, 네가 천한 서얼이니 어찌 감히 선조의 제사를 주관하겠느냐”라고 하였다. 명목 또한 그의 어머니 뜻과 같았다. 마침내 집안의 큰 방을 비우고 모자가 각각 내외의 협실에 거하였다. 그 재산의 자잘한 그릇하나 까지도 문서로 만들어 빠뜨리는 것이 없었다. 이에 가문의 어른에게 청하여 종인의 아들 命久를 상주로 세우며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다섯이 있으나, 적자에게 의지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후에 용인으로 이사갈 때 따라가 생을 마쳤다. 다섯 아들은 각자 스스로 생을 꾸리고 살았다.

명목은 얼마 안되어 부인을 잃고 자식이 없었으나 후사를 세우지 못했다. 또한 생계를 살피지 않고 친지의 집을 돌아다니다가 나이 70이 넘어 생을 마쳤다. 내가 일찍이 명목의 외모를 보니, 과리한 학과 같고 천리마처럼 말을 잘하였다. 책사에 박식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역사요, 역사가 곧 나다.”라고 하였다. 그와 함께 옛날 일에 대해 이야기 하면 고증과 근거가 논리 정연하였는데, 밤새도록 이야기가 이어졌다. 평생 史書を 읽은 이 중에 그와 견줄 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비독과 술을 잘 마시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세속의 선비는 아니었다. 남당선생이 연능의 풍이 있다하여 예우했고, 근옹 또한 항상 우의가 있었다.³²⁾

추탄 오윤겸(1559~1636)의 후손인 오수현의 집안 첩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대로 선조의 가산 옛터인 결성 지역의 풍토를 소개하며 일화를 서술하였다. 오수현에게는 애첩이 있었는데 부인이 첩을 꾸지람하는 것이 매우 심한 정도

32) 『박소촌화』1권 174화, “吳金川遂顯居結城松泉, 卽其先祖楸灘相公舊基也. 地兼山海之利, 而瓦屋滿一洞, 天真好家居也. 主人既累典映邑, 而門外水田, 皆極膏腴上賈. 主人疎其妻而無子, 愛妾生五子, 竟不立後, 遺命, 以庶子承嫡, 人或有毀之者, 然其家法有足可稱也. 妻主內權, 妾徒視饈, 方其進食, 妾立于戶外, 惟恐有責. 及其撤, 乃退而自食. 主人嘗入中門之內見愛妾, 方跪于庭受責, 乃退而坐外舍, 心不能忘, 復入中門, 妾尙跪伏, 而內子怒詈未息, 復退而出入中門者三四, 終無所右其妾也. 嘗歸內房攀子, 塗以菱花紙, 上以防風, 妾辭曰, 妾之所居, 斯亦濫矣. 重之以如許貴飾, 決非所安, 以此別房, 獨無攀子云. 主人既沒, 其妾與其長子命穆謀曰, 進賜雖使汝承嫡, 汝賤孽, 其敢主先祀乎. 命穆亦如其母之志, 遂空其大房室, 母子各居內外夾室. 籍其產瑣瑣什器, 亦無漏者, 乃得請于門長擇宗人之子命久爲立喪主曰, 吾有五子, 莫如依嫡子. 後隨龍仁搬移所以終, 五子各自資身, 而命穆已而喪室無子, 不立後. 亦不立產業, 周游親知家, 年踰七十而終. 余嘗見命穆貌如瘦鶴, 言若騁驥, 博洽書史, 自謂我則史, 史則我, 與之談古, 則橫豎考據, 竟夕纒纒, 非終歲讀史之比. 亦善圍棋飲酒, 磊落不羈, 非俗流也. 南塘先生, 以其有延陵之風, 而禮貌之. 惟勤翁, 亦常有情契焉.”

였다. 윗글의 맥락에서는 본처의 허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에 반해 지혜롭게 잘 견디고 겸손하게 대처하는 오수현의 첩의 처세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새롭게 반자를 꾸미는 일에 대해 거듭 사양하는 첩의 말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부각된다. 오수현의 첩을 드러내놓고 칭찬한 것은 아니더라도 처신과 말, 행동을 통해 오수현에게 특별히 아낌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첩은 오수현이 죽고 나서 장자를 세우는 일을 끝내 사양한다. 마지막에 이동윤은 첩의 아들인 서자 명목의 인품과 성격 및 학식에 대하여 칭찬하고 글을 마무리한다. 이 일화에서 이동윤이 확실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오수현의 가법에 족히 칭찬할 것이 있다.(然其家法有足可稱也)”는 것이다. 오수현의 첩은 아들을 다섯이나 낳았으나,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았고 지극히 겸손하였으며 지혜로운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아들인 명목 또한 남당 한원진이 칭찬하고 유근당 김교행이 가깝게 예우하였다는 것이다. 한 집안의 첩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이동윤은 매우 자세히 근거를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소촌화』는 이 밖에도 노론가의 文識 있는 女士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우암 송시열의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우암선생의 손녀는 도정 최성서의 부인이 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다. 선생께서 글을 쓸 때 돕게 하였는데, 글씨가 이쁘고 좋아서 선생의 필법과 흡사하여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었다. 교리공 송주석과 학문에 대해 논하면 힐항하는 바가 많았는데, 교리공이 난처해했다고 한다.³³⁾

우암 선생의 손녀는 都正 崔星瑞의 부인으로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매우 잘 썼다고 한다. 흡사 선생의 필법과 비슷하여 사람들이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33) 『박소촌화』2권 110화, “尤菴先生孫女, 爲崔都正星瑞夫人, 能文善書, 先生副人文字, 時或倩卓而恰似先生筆法, 人不能辨, 與校理公疇錫, 論學多所頡頏, 校理公難之云.”

고 한다. 송주석³⁴⁾은 우암 송시열의 손자인데, 오라비와 함께 학문에 대해 논할 때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 그 뛰어난 문식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남당 한원진 집안의 여성에 대한 기록이다.

남당선생의 누이 이씨 부인은 어렸을 때 나이가 같았던 조카가 『사략』을 배우는 것을 보고 곁에서 한권을 들고서 문리가 이미 통하였다. 조카가 시를 짓는 것을 보고 때때로 혹 대신 써주었는데 시어가 능히 사람을 놀래 킬 만하였다. 어른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 아이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크게 기이해 하였다.³⁵⁾

남당선생의 누이 이씨 부인은李宗五에게 시집간 막내 누이를 말한다. 어렸을 때 나이가 비슷한 조카가 『史略』을 배울 때 곁에서 한권을 들고 문리가 통하여 다른 책을 볼 수 있었다. 조카가 시를 지을 때도 대작하여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이렇게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나 출산하다가 24세에 죽었으므로³⁶⁾ 남당선생이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노론 사대신 가문 중 소재 이이명 집안의 다섯 딸은 특히 婦德외에도 文識이 뛰어났다. 이이명에게는 모두 다섯 명의 딸이 있었는데, 각각 金鼎運, 金時發, 林象翼, 金信謙, 金遠祚에게 시집갔다.

소재 문충공은 다섯 명의 딸이 있었는데, 부덕이외에도 문식 또한 넉넉하였다. 설천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큰 고모인 김합천댁(김정운의 부인)이 문식이 크게 통달

34) 송주석 : 본관은 恩津, 자는 敍九, 호는 鳳谷으로 우암 송시열의 손자이며, 基泰의 아들이다. 우암의 둘째 손자이다. 우암의 손자 殷錫은 현감, 疇錫은 校理, 茂錫은 軍守, 淳錫은 현감을 지냈고, 晦錫은 일찍 죽었으며, 손녀는 현감 崔星瑞에게 시집갔다.

35) 『박소촌화』2권 111화, “南塘先生之妹李氏婦, 幼時, 見姪子年相若者學史略, 傍聽一卷, 而文理已通, 能看他書. 見姪子作詩, 時或代草, 則語能驚人, 長者見之曰, 此非某兒所能. 及知其實, 大異之. …”

36) 위의 글, “年二十四厄於產, 而歿. 先生狀其德曰, 生有異質, 聞聲而心通, 不教而知學, 性又沈默, 未嘗語人, 以文字事故, 雖兄弟不能盡知之.”

하여 말하는 것이 절로 조리가 있었다. 만약 장부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명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유근옹(김교행)이 한번은 어머니 자매의 문식은 누가 뛰어난지에 대해 물었다. 말하기를 “막내고도 김신천 님이 마땅히 제일이다. 항상 손수 논어를 바른 글자로 써서 베개 밑에 놓고 모두 외웠다.”라고 하였다.³⁷⁾

위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문충공 이이명의 다섯 딸은 모두 부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문식도 꽤 검비하여 똑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큰 딸은 문학과 학식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조리가 있었으며, 막내딸은 논어를 모두 써서 외웠다고 진하고 있다.

이 밖에 충청도 향인의 부인 중 敎官 洪啓道 딸 이씨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관 홍계도의 딸이 이씨의 부인이 되었으나, 부부사이로 얼마 지내지 못하고 일찍 과부가 되어 부여 강촌에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제문을 병려체로 지을 줄 알았다. 설천공 이공이 자주 칭찬하며 말하기를 “만약 번다한 것을 조금 깎아낸다면 길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제문 중의 내용의 말이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하다. ‘스스로 애도하는 賦’에 차운한 것 역시 설천공이 칭찬하였다. 이에 내가 “이것이 『동문선』에 들어갈 만합니까?”라고 하니, 설천공이 말하기를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율은 가히 『箕雅』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 부인은 『사문유취』 한 부를 익숙히 봐서 마치 자기 말처럼 외우기 때문에 문장이 술술 나왔다고 한다.³⁸⁾

부여 강촌에 살았던 홍계도의 딸 이씨부인이 남편의 제문을 병려문으로 지

37) 『박소촌화』2권 113화, “疏齋李忠文公有五女, 婦德之外, 文識亦紆餘. 雪川公, 嘗曰, 吾伯姑母金陝川室內, 識量通豁, 發言自由綱條, 若使爲丈夫, 則爲名賢. … 勤翁嘗問, 母氏姊妹文識孰優. 曰, 季姑母金信川室內, 當爲第一, 嘗手書論語正文, 置枕邊而盡誦. …”

38) 『박소촌화』2권 117화, “洪敎官啓道女, 爲李氏婦, 不得於姑夫婦, 各居早寡, 而居扶餘江村. 其祭夫文, 能得駢儷之體, 雪川李公, 亟稱曰, 若稍刪其繁, 則可以永傳. … 句語能驚人. 其次自悼賦韻, 亦爲雪川公所稱. 余曰, 此可入東文選乎. 雪川公曰, 是則未知其必然, 而詩律有可入箕雅者也. 是婦人熟看事文類聚一部, 如誦己言, 故文出繼繼云.”

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를 설천공 이봉상이 번다한 것을 조금 수정하면 길이 전할 수 있다고 하여 그녀의 문장을 높게 인정하였다. 아울러 반첩여가 지은 「자도부」에 차운한 시도 뛰어났다고 한다. 비록 『동문선』에 뽑힐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아』에는 뽑힐만하다고 하였고, 평소 그녀가 『사문유취』를 자신의 말처럼 외워 문장을 짓는 것에 전혀 구애가 없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앞서 명문가의 여성들이 고아한 취미와 고상함으로 문식과 서예, 경서를 읽는 것과는 격이 다른 창의적인 문장구사 능력을 갖춘 여성이다. 또한 설천공과 이동윤은 이씨 부인의 글재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론하며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그밖에 이동윤의 종고모인 황씨부인은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가르치지 않고도 문식이 있었다. 황씨부인은 『중용언해』를 즐겨 읽고 항상 그것을 외워서 체득하였다고 전한다.³⁹⁾ 이 기사에는 이동윤이 “志趣의 高, 언행의 雅가 女士라 일컬을 만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식과 취미가 고고하고 아취가 있는 여사의 모습을 높게 칭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進士 金鐵根의 아내 郭氏(景寒齋 郭始徵 딸)는 책을 읽고 문장을 지을 줄 알았고 역시 남편의 墓銘을 지었다고 한다.⁴⁰⁾ 한편, 監司 金時燾이 대책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의 사촌 여동생인 燕岐 李氏 부인이 試卷을 펼쳐놓고 읽는 데 막힘이 없었다⁴¹⁾는 일화도 있다. 그녀가 지은 시를 이동윤은 꽤 많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여성 인물에 대한 『박소촌화』의 기록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명문가의 집안 여성이나, 혹은 향인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문학적 재능과 소양, 문식과 雅趣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동윤은 그들이 지닌 독자적 재능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하면서 작품의 평가와 소견을 덧붙인 것으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9) 『박소촌화』2권 114화.

40) 『박소촌화』3권 118화.

41) 『박소촌화』2권 116화.

본고는 이동윤이 기록한 여성들에 대해 주변 자료와 행장 및 가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노론 사대신 집안 간의 혼인으로 맺어진 복잡한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 역할 등 노론 집안가의 여성에 대한 집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III. 결론

『박소촌화』는 호서지역의 인물과 문화사와 관련하여 지역색이 가득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으로서, 본고는 이에 소개된 호서 여성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박소촌화』는 노론의 당파적 성향이 강한 저작이다. 신임사화 당시 피화를 겪은 사대부 여성으로서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키려했던 지혜로움과 책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피화 당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미묘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동윤은 극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고 누이와 그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노론의 당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이는 18세기 유행한 야담들의 보편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서지역의 당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지역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박소촌화』는 호서지역의 여성인물의 선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분상으로 여노비와 유모·효부·열부 등 그 계층도 다양하다. 특히 악행을 일삼은 노비와 유모를 낱낱이 기록하고 상세히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권선징악의 감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 이동윤이 머물렀던 지역과 가까운 여성 인물의 선행과 효행의 일화를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지역 소재와 역사서에 실리지 못한 여성의 새로운 인물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셋째, 『박소촌화』를 통해 재능과 지혜가 뛰어났던 호서지역 여성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호서지역 여성의 지역자료가 미비한 현 상태에서 지역 인물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물군에 대한 정보를 다소 보충할 수 있다.

본고는 지역 가문의 족보와 여성 인물간의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찾아 고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參考 文獻>

李東允, 『樸素村話』, 규장각본(3책).

- 김남기, 「金信謙의 「百六哀吟」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22, 한국한문학회, 1998.
- 김영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해외한국학자료 『『樸素村話』 해제』
_____,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集部 1』, 서울대 규장각, 2002.
- _____, 『樸素村話』 해제,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_____, 「이동운이 기록한 누나 전주 이씨의 삶과 의미」, 『국어국문학』156, 국어국문학 회, 2010.
- 송철호, 「박소촌화를 통해 본 18세기 보수적 지식인의 모습」, 『한국민족문화』21, 한국민 족문화연구소, 2003.
- 이병직, 「이동운의 사상과 『박소촌화』의 저작동인」, 『문창어문논집』39, 문창어문학회, 2002.
- _____, 「박소촌화의 텍스트 구성방식과 의미」, 『한국민족문화』22, 부산대 한국민족문 화연구소, 2003.
- _____,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64, 한국문학회, 2013.
- 임형택, 「김씨 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정준식, 「『박소촌화』의 著作者와 著作年代」, 『어문연구』39, 어문연구학회, 2002.
- _____, 「박소촌화 소재 노비담 연구」, 『어문연구』42, 어문연구학회, 2003.
- 조선옥, 『박소촌화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8.
- 하미경, 「박소촌화에 나타난 이동운의 서사방식 연구」, 『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학회, 2003.
- 황수연, 「사화의 극복, 여성의 숨은 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2,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2011.

Abstract

Appearance of Women in Hoseo Region recorded in 『Baksochonhwa』
/ Lee Jae-sook*

『Baksochonhwa』 is a writing, in which Lee, Dong-yoon recorded the incidents he saw and heard with interest while living in the whole area of Chungcheong-do.

This paper, by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Baksochonhwa』 includes the cultural history of Hoseo region & prominent figures' deeds of the day exuberantly, aims to capture the new information about the women in this region as well.

First, this paper looked into the anecdote of the women who resolved the household meeting disaster which led to total eradication of the whole family with Sinimsahwa as the background. The anecdote makes it possible to know the appearance and deeds of Sadaebu women in detail, who managed a household for retaining life of their family, and coped with a crisis undauntedly at that time when a great many figures affiliated with Noron including Noron's 4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Kim, Chang-jip · Lee, Ie-myung · Lee, Keon-myung, and Jo, Taechae, etc. met disaster.

Second, there are many records about the same village women, who put filial behavior and fidelity into practice, in 『Baksochonhwa』. Lee, Dong-yoon very minutely recorded a woman's image with emphasis on fidelity, loyalty and filial behavior among the stories which he heard from local village people, or anecdotes coming down to his family. It's learned that Lee, Dong-yoon attempted to make his recording of anecdotes of good deeds an example for a lesson of the world in later generations.

* Full-time Researcher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no 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jaisugi@hanmail.net

Third, Lee, Dong-yoon is diversely introducing anecdotes about a wise concubine, or a woman, whose academic capability and writing skills, were excellent. Referring to the literary talent & refinement, rhetorical embellishment and elegance of a high-born woman and an unknown woman of the same hometown, Lee, Dong-yoon seems to have acknowledged a woman's independent talent as positive.

『Baksochonhwa』 can be judged as a writing of adequate cultural value in that this writing introduces more exuberant stories about regional women under circumstance where records about the woman in Hoseo region are not diverse.

【Key words】 『Baksochonhwa』, Lee, Dong-yoon, Hoseo region, Sinimsahwa, Noron's 4 high-ranking officials

투고일 : 5월 15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